

연구노트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of Korea

황명진** · 심수진***

Myung Jin Hwang · Sujin Shim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이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개인적 목표의 성취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달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당면과제로서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만족감을 객관화, 계량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행복지수”는 국가운영에 중요한 정책적 기초 자료나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 작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 및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행복의 개념 정의와 함께 해외의 ‘행복’ 측정연구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측정을 위한 지표구성 및 지수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함과 함께 ‘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 행복지수, 사회지표, 측정, 주관성, 객관성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of the Happiness Index of Korea. "Happiness" reflects various aspects of human lives such as individual experiences, values systems and personal goals as well as social census for the welfare system which is embedded within the social norms, justice system and the ultimate goal for the modern democratic state. In this regard, it gains mor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numeric and objective measurements for the overall level of the happiness of a society. However, while an accurate and

* 본 논문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황명진.
E-mail: mojihwang@korea.ac.kr

***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relevant measure of happiness will serve for policy makers as sources for the evaluation of social policies in one hand, the making of "happiness" index in the other hand may have to deal with various obstacles in terms of agreeable definitions, data acquisition, qualification of it. The study includes an analytical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ices. Methodological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by using data sources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is suggested for a further study.

Key words : happiness index, social indicators, measurement, subjectivity, objectivity

I. 서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적 환경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객관적으로 그 사회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러한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DP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복지 수준이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 등도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소득증가나 다른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행복의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사회문화적 지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아울러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정교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이 필요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행복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지표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수개발과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으로 앞으로의 행복지수 개발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행복지수의 지표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국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행복지수 지표개발의 가능성 검토를 연구목표로 한다. 따라서 행복지수 지표구성의 체계를 토대로 하여 기존 지표의 활용 가능성과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되어진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그러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행복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Veenhoven 2007).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어지기도 하며(Diener 2007; Dolan 2007; 현경자 2004), 주관성보다는 객관적인 환경요인이 강조되는 웰빙이나 삶의 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Veenhoven 2007; Donnelly 2004). 주관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면 행복한 삶은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즉 행복은 뚜렷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개인의 기대수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환경을 강조하는 객관적인 웰빙이나 삶의 질보다는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심리학적 현상으로서의 행복을 정의하고자 한다.

2. 행복과 삶의 질의 측정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Diener & Emmons 1985). 하나는 객관적인 차원으로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그리고,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측정 지표 역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되고 있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2006년 17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편 주관적 측정으로 이루어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2001년 78개국 중 49위를 하였으며, 1위는 나이지리아로 나타났다.

이 같이 삶의 질과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측정의 방법이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 측정은 외부에서 명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주관적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 측정은 암시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Veenhoven 2002). 보통 객관적 지표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좋은 삶(good life)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초적인 접근방식에서 나온 정보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지표의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질 개념을 기초로 한다. 삶에 대한 사람들의 다차원적인 평가는 기분이나 감정의 주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인 판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들 스스로의 평가로 구성된다(Royo & Velazco 2005).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기존의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국내연구와 국가별 연구, 국제비교 연구로 구분하여 각 지표의 구성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3. 국내 행복관련 연구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송 1997) 연구는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지표들의 영역구분을 고려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청의 사회통계를 비롯한 인구, 경제 등 총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지표들은 OECD 국가들의 통계자료로 구성되었으며, '69~'92년의 5년 단위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성을 목적으로 지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표구성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참여나 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제외되어 있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라던지, TV보급률, 전화보급률, 도서발행률과 같은 지표들은 지금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변별력이 없는 지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김명소 외(2006)의 '행복지수' 연구는 행복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이 척도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 공식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활용도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편성이나 일반성 측면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 지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행복지수 개발과정은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서 지표의 공통부분을 추출하였고, 이렇게 구축된 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결정하였다. 이 행복지수는 서울시와 국제도시와의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도시비교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측정은 주관적 측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주관적 측정문항만으로 행복을 측정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은 개인의 만족도로 물질적 환경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적인 지표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김신영 외 2006)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삶의 영역구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개발된 'Child Well - Being Index'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였으나,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 지표의 한계로 인해 지수산출은 주관적 지표로만 이루어졌다. 지표는 모두 6개 영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지표에 있어서의 참고자료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지표구성 과정이나 지수산출 방안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따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객관적 지표의 지수 산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표구축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제비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대부분의 '행복지수' 혹은 '삶의 질 지수'에 관한 국내연구는 일회성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개별연구가 아닌 꾸준히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이지만, 그 대상이 서울시민과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 지표구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지표의 구축방법에 있어서는 김현송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각 연구들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의 구성 자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는 사회제도가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지표가 구성되는 반면, 김명소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적 측면보다 개인의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김현송(1997)의 연구는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표구성 과정에서 국제비교를 위해서 구축 가능한 지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정된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국내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외의 행복연구

가장 잘 알려진 해외의 사례로는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 있다. 부탄에서는 GDP보다 GNH를 좋은 정부의 표준으로 삼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GNH는 9개의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혼합되어 있다. 9개 분야는 생활수준, 건강, 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력, 시간 사용과 균형, 거버넌스,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심리적 행복으로 구성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캐나다는 국민의 웰빙(wellbeing)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는 전체 7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은 캐나다인과 국제적 팀 및 자문위원회 의해서 개발되었다. 캐나다의 웰빙지수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영역에 있어서 다른 지표들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는 국민생활을 둘러싸는 환경변화와 국민의 의식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되어 작성된 지표이다(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의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PLI는 변화율 표준화 지수를 이용하여 10년간 매년 변화율의 절대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 한 후 기준년도를 100으로 설정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웨이트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계산되었다. 이 지표는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전반에 대한 지표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는 홍콩

Chinese University의 사회과학 교수진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지수 계산은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합계값을 100으로 놓고 계산하여 변화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2002년의 각 개별 지표들은 가중치 없이 모두 같은 4.76의 값을 가진다. 21개 지표 중 6개 지표(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 비판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지표이다(Chan et al. 2005).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공통점은 보통 행복지수로 개발되기보다는 삶의 질 또는 웰빙지수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지표보다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구성된다. 지표의 구성방식은 주로 객관적 지표가 중심이 되고,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영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연구들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적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III.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1. 행복지수의 영역 및 지표구성

1) 측정 자료의 검토

이 연구에서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구성을 위해서 검토된 자료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 자료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어 1987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쳐 2006년 13개 영역의 489개 지표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

요 국면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 지향적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 상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사회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기준은 1)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고, 2)사회의 변동, 안녕의 변동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고, 3)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고, 4)사회적 관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하고, 5)특정인구집단의 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해야 하며, 6)시계열적 통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은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그리고, 정부와 사회참여이다. 영역구성을 보면 모든 사회의 영역을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통계조사’ 역시 인구, 정보와 통신 영역을 제외하고는 구성 영역이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을 기초로 하여 행복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지표구성을 위해서 ‘사회통계조사’ 항목을 검토하였다. 물론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 자료가 행복지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표를 기본자료로 이용할 경우, 기존의 자료 안에서만 내용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구축과 검증에 관련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표의 개발과정과 개편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지표체계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사회지표의 영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행복지수의 영역을 구성할 것이다.

2) 영역의 구성

한국의 사회지표가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영역의 구성면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표 1〉 참조). ‘한국의 사회지표’의 각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구 영역은 인구의 구성, 분포,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통계국의 연구에서는 인구의 구성, 크기, 분포는 사회·경제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어 안녕(wellbeing)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Trewin 2001). 〈표 1〉을 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인구와 관련된 영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구밀도나 인구분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영역은 가족의 구성과 형성, 노인생활, 가족규범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의 정서적, 물질적, 재정적 보호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행연구들의 영역과의 비교

	UNDP HDI	EIU 삶의질 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 웰빙 지수	한국인 삶의질	서울시 행복 지수	일본 PLI	홍콩 삶의질 지수	OECD 사회 지표
인구												
가구와 가족		○					○					
소득과 소비	○	○			○	○	○	○	○	○	○	○
노동		○					○	○		○		
교육	○				○	○	○	○	○	○		○
보건	○	○	○	○	○	○	○	○		○		○
주거/교통							○		○	○		○
정보/통신												
환경		○	○	○	○	○			○		○	○
복지									○			
문화와 여가					○	○	○	○	○		○	○
안전							○		○			○
정부/사회 참여		○		○	○	○			○	○		

또한 가족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며(Lambert 2005), 기존의 선행연구(EIU 2005; 김명소 외 2004)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소득과 소비 영역은 소득 및 소비 수준, 저축 및 투자, 소득분배, 경제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은 경제적 자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높은 소득과 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다(Trewin 2001). 이 영역은 경제자원과 관련된 영역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물질적 안녕이나 생활수준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신영 외 2006; EIU 2005; Chan et al. 2005; 김명소 외 2004; 이현송 1997).

노동 영역은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취업 등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직업은 경제적 자원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임금, 근무환경, 근무기간, 업무의 만족도 등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Trewin 2001). Helliwell의 연구에서는 직업 환경과 직업만족도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Lambert 2005). 기존 연구들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직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EIU 2005; 이현송 1997). 직업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 사회관계의 측면과 개인의 자아성취감을 측정하는 지표와도 연관되어 있어 행복 측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육 영역은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문제의 감소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는 행복 측정의 한 부분으로 교육의 질, 지식수준, 교육기회,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교육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신영 외 2006; EIU 2005; 이현송 1997).

보건 영역은 건강 상태, 보건의료 이용, 의료자원, 의료비용, 의료기술 등

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장애나 병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활방식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Trewin 2001). 보건 영역은 기존의 거의 모든 연구에서 건강,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Marks et al. 2006; UNDP 2006; EIU 2005; 김명소 외 2004; 이현송 1997).

주거와 교통 영역은 주택, 주거, 교통시설 및 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는 숙소,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요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 환경의 질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 주거 또는 교통과 관련된 지표는 생활환경 영역에 포함되어 주변생활과 교통에 대한 만족도, 주택구매와 관련된 지표를 행복 측정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Chan et al. 2005).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보와 통신 영역은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 기반,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지표로서 정보화 수준이나 환경은 삶의 질이나 사회지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전체 사회에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령별로 행복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 중 정보화 기반과 관련된 지표들 중 TV 보급률이나 휴대폰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표들이 많아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환경 영역은 환경상태, 환경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또한 정보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나 생활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생태계나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HPI는 생태학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를 행복 측정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키고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Marks et al.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Chan et al. 2005).

복지 영역은 복지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영역은 전반적인 사회의 복지제도나 서비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의 연구에서 복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양육·보호 시설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삶의 질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이며, 따라서 다른 영역들과 겹쳐 있는 부분이 많다(예를 들면, 가족 영역이나 직업 영역과 겹칠 수 있음). 또한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문화유산, 예술, 문화산업, 문화활동, 문화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시간의 활용은 개인에게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결집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 문화는 주로 문화시설, 여가 활용, 시간사용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이현송 1997). 문화생활과 여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과는 다른 자기 개발이나 휴식과 연관된 개념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안전 영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 사고, 법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높은 범죄율은 개인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의 생활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신뢰나 자유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 사고의 위험성, 범죄의 위험성을 통해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참여, 시민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참여 그리고, 사회참여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영역이나 시민자치활동, 행정, 정치적 안정성 등이 행복을 측정하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영국 캠브리지대 유럽사회조사팀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정부와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에 의해 결정되며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거나 아주 가까운 최소한 1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코라도 박사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보았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지표로서의 기준에 맞게 개발되고 개선된 지표체계로서,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이 측정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복측정 체계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영역은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환경,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이다. 기존의 13개 영역 모두 삶의 질과 관련이 되는 지표이겠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영역이 너무 많고 광범위하여 기존연구를 토대로 몇 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통합된 영역은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사회신뢰)로 모두 10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기존의 인구 영역의 경우 인구의 밀도나 분포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선행연구들을 볼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인구밀도의 경우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인구밀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지표이며, 주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구의 분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 등은 필요하다면 가족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교통, 복지 영역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주거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필요시에는 지표의 구성에는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와 통신 영역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률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전체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영역보다 중요성이 낮은 부분이고,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영역 구분에서는 제외하였다.

3) 영역별 지표구성

영역별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복이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고로 1차 지표구성을 하였다(10개 영역의 68개 지표). 물론 선행연구들이 모두 한국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아니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완벽하고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구성안을 토대로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통계개발원 내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1차 지표구성안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지표에 대한 타당한 정도를 7점 척도(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7점: 매우 타당함)로 측정하였고, 전체적인 지표구성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23부의 설문문이 완료되었고, 전체적으로 표준편차의 값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지표의 타당도 평가기준은 우선적으로 타당한 정도에 대한 지표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 평균값이 5.36으로, 5점 미만이거나 한 영역에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 중 평균값이 낮은 지표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전체 영역별 지표구성은 <표 2>와 같다.

이들 지표는 처음부터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 안에서 구성된 지표로 지표구성에 있어서 매우 한정적일 수 있으며,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된 지표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각 영역별로 포함되는 지표들이 부족하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역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포함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전체 43개)

영역	지표	자료출처	주기
가족 (3)	조이혼율	인구동태통계	1년(80-05)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8,02,06)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95-05)
경제 (5)	1인당 GDP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1년(81-05)
	소득집중도(지니계수)	가계조사	1년(98-05)
	소득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03)
	소비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03)
	생활물가지수	통계청, 물가연보	1년(00-06)
직업 (3)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81-06)
	주당 근로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년(85,90,95,00-05)
	근로여건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8,02,06)
교육 (4)	교육기회의 충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85,90,95,00-06)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학교생활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주관적 건강평가*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건강 (6)	스트레스 인식정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4년(01,05)
	유병률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5,99,03,06)
	기대수명	생명표	1년(01-05)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3년(98,02,0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1년(95-05)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92-06)
주거 (4)	주택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방당 거주인수	인구주택총조사	5년(80-8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대기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환경 (4)	수질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소음공해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02-05),

〈뒤에 계속〉

<앞에서 계속>

안전 (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범죄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82-05)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82-05)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화재발생건수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1년(82-05)
문화와 여가 (4)	문화예술시설수	문화관광부	1년(95-05)
	여가활용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5년(99,04)
	공공체육시설수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년(96-05)
정부와 사회 참여 (4)	사회단체참여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자원봉사자 비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사회이동의 가능성*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주. * 표시된 지표는 주관적 평가 항목임

추가적으로 새로운 지표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주로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사회관계나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또는 자유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이다(Diener 2007; Dolan 2007; Lambert 2005; Veenhoven 2002). 현재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들에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지표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표들의 추가 구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나 근린시설 관련 지표와 장애인, 여성, 노인과 관련된 지표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지수산출 방법 검토

1) 지수산출 방법 사례

지수란 물가나 임금 등과 같은 형상의 변동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때를 기준하여 비교하는 숫자로 정의할 수 있다. 지수는 단일한 통계계

열을 비교하는 개별지수와 다수의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종합지수는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 요소를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주지 않는 단순지수와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는 가중지수로 구분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행복측정을 위한 종합지수 방법은 일본의 신생활지수나 홍콩의 삶의 질 지수의 계산방식처럼 개별지표들의 연도별 변화율로 종합지수 값을 계산하는 방법과, z-score를 통해 상이한 변수들을 표준화하여 동일척도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의 신생활지수의 방식을 보면 먼저 개별지표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는데, 이는 시계열과 지역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계열은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지역별은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에 따라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종합지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수화를 위해서 변동의 폭과 구축단위 등이 다른 다수의 개별지표를 종합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지표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변화율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고,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별지표들의 표준화 지수를 구하고 나서 개별지수들을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지표들의 방향성을 판단해야 한다. 즉 그 지표의 상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플러스,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한다. 마이너스 지표의 경우 표준화 지수를 200에서 뺀 값으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방향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나면 개별지표들의 단순평균이 종합지수가 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표준화지수에 곱하게 되고, 이것의 평균값이 종합지수가 된다.

z-score 표준화 방법의 사례는 이광국과 정하영(200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삶의 질 지수의 선정에 있어서 z-score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상이한 변수들을 전체적 분포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라는 동일척도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다.

$$QOL = \sum z_{ij} \quad z_{ij} = \frac{x_{ij} - x_i}{\delta_i}$$

여기에서 x_{ij} 는 j년도 i변수의 조사값, x_i 는 i변수의 평균치이다. 이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 z_{ij} 로 j년도 i변수의 값이다. 이러한 영역별 표준화 값의 평균으로 각 영역의 지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2) 지수산출 가능성 검토

위와 같이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지표들의 자료 구축년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나 또한 한 해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구축년도가 일정해야 한다. 둘째, 지표들 간의 자료 구축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화 계산을 위해서는 각 지표별로 구축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다. 셋째,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구성한 지표들의 경우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지표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사회지표는 매년 발행되는 통계이지만, 세부지표들은 자료의 출처도 다양하고 주기도 다양하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들은 구축된 년도가 2년 또는 3년밖에 되지 않고, 각 지표별 구축 가능한 연도도 서로 다르다. 지표들의 이러한 구축 정도는 지수산출 과정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 구축기간도 길지 않고, 각 지표별로 구축년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연도에 대해서 추정치를 사용하는 등 표준화 과정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 값들의 연도별 변화율을 통해서 지수값을 측정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표 구성에 있어 구축 가능한 지표로 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용 가능한 자료 중에서 구축 가능한 연도가 상이한 자료들은 추세, 변동, 계절성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적합(fitting) 및 예측하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으로 자료 구축년도를 맞추어야 한다. 단위 값이 상이한 자료를 포함하는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야 하는데 이 경우 일본의 신생활지수의 방식처럼 기준년도에서 변화되는 값을 백분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한꺼번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z -score 방식(요인분석기법을 사용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출된 값이 표준화된 z -score로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생활지수에서 채택한 방법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산출에 참고가 될 만한 방법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가능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행복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행복지수의 지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은 주관적인 측정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즉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지표보다 더 보편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행복을 물질적인 삶, 주관적인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삶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들의 만족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웰빙이나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행복과 관련된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할 순 없지만, 현재의 사회구조, 삶의 질, 사회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지표구성에 있어서 완벽한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단기간에 지표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안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10개 영역의 68개 지표를 구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장·단점 파악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기존의 많은 검증과 연구를 거친 자료를 활용하면서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구축된 지표체계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0개 영역의 43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지표구성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된 지표가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영역구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체 10개 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의 13개 영역 중에서 인구, 정보통신, 복지 부분을 제외하고 구성된 영역이다. 인구 영역은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일 수 있으며, 정보통신 영역은 이미 포화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고,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영역이다. 복지 영역은 광범위한 부분으로 전체 영역에 걸쳐서 포함될 수 있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복지 영역의 경우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성평등성이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노인 등)와 관련된 지표 구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구축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의 세부지표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서로 동일하지 않은 영역으로 정부·정치 영역과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영역은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지표들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단기간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를 ‘한국의 사회지표’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의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체계이긴 하지만,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외되는 지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 데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은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 간에 구성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정된 수준에서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미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지표로서 검증된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구축년도가 맞지 않아서 통계분석적인 지표의 타당도 검토와 지수계산 과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축이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을 하거나, 주관적 지표로 조사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구성되는 지표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는 이를 위해 새로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의 연구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지표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구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매우 다양

하다는 것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정확하고 타당도가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행복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아니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측정에 있어 타당도가 높은 지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표들의 표준화와 통합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부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지표개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하)》. 두산동아.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2004.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35-62.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신영·이경상·백혜정·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 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 269-301.
-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 현경자. 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18: 60-100.
-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Canadian Index of Wellbeing: Measuring What Matters*, 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 Chan, Y. K., C. A Kwan and T. D. Shek. 2005. "Quality of Life in Hong Kong: The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259-289.
- Diener, E., R.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2007. "Happiness Accounts for Policy Use."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 Dolan, P. 2007. "Cost-happiness Analysis: a new and improved form of economic appraisal?,"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 Donnelly, S. 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 EIU.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THE WORLD IN 200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Lambert, J. 2005. "The Economics of Happiness." *CANADIAN BUSINESS INVESTOR* 500: 184-187.
- Marks, N., S., Abdallah, A. Simms and S. Thompson. 2006. *The Happy Planet Index*. NEF: New Economics Foundation.
- Trewin, D. 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접수 2008/7/22, 1차 수정 2008/9/19, 2차 수정 2008/11/12,
 게재확정 2008/11/13]